

‘교통 첨단기술 도입’ 강진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성전면 일원 좌회전 감응신호기 설치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차량 흐름 감지 신호 대기시간 절약 교차로 신호 위반 사고 예방 목표

강진군이 교통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교통안전 선진화를 향한 강진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 구축에 기여할 전망이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성전면 신호교차로와 밤재교차로에 좌회전 감응신호를 설치했으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LDWS) 지원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좌회전 감응신호는 좌회전 구간에 차량이 대기하면 차량 흐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불필요한 신호 대기를 줄이고 교통 효율성을 높이는 첨단 시스템이다.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신호 위반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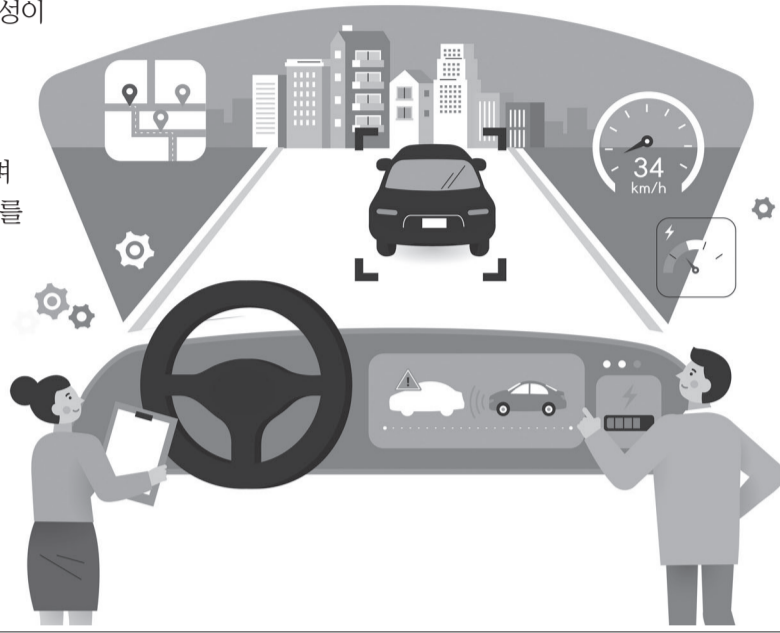
이번 사업이 적용된 신호교차로와 밤재교차로는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았던 곳으로 교통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운전자 지원도 펼치고 있다. 강진군은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며 운전 부주의나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명의 고령운전자 차량에 장치를 설치했으며 운전자가 차선을 벗어날 때 경고를 통해 위험을 인지할 수 있다.

이재이 강진군안전재난교통과장은 “좌회전 감응신호와 고령운전자 지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군민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완도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93억원 지급

7000여농가 대상

완도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93억원을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소농 직불금은 4721개 농가에 61억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086개 농가에 32억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 사항을 미이행하면 5~20%까지 감액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대

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도 실시했다.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신청 안내를 했으며 신청 이후에는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 소득 초과, 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검증, 미충족 건은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

또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부적합 우려 필지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했다.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관외 경작자·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은 현장 점검을 집중하고 등록 취소·제한, 환수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한파, 장마, 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의 어려움에도 올 한 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공익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지난 2일 강진군청 현관 입구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을 군청 관계자들이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해남군, 해남읍 오일시장 주정차 흠잡제 운영

12월 한달간 계도기간

해남군은 해남읍 오일시장 일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흠잡제 운영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흠잡제 운영은 12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5월 오일시장 일원의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도로 혼잡으로 시행을 유보해왔다.

군은 주정차 단속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과 마을 방송 등으로 해당 소식을 충분히 알리고,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계도 기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흠잡제가 시행될 단속 구간은 해남교~고도교차로 구간이다. 흠잡날에는

원편 한국병원 방면, 짝숫날에는 오른편 고도 5일시장 방면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며 반대편 주정차는 단속 대상이 된다.

평일 점심(오전 11시30분~오후 1시 30분)과 장날(끝자리 1·6일)은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돼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선진 주차 질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 차량 진입 후 5분 이상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구역임을 문자로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교통과(061-530-536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사랑의 온도탑 설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강진군이 지난 2일 강진군청 현관 입구에 사랑의 온도탑을 설치했다.

3일 강진군에 따르면 사랑의 온도탑은 전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하는 희망2025 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오는 2025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모금목표액은 현물과 현금을 포함해 3억1800만원이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강진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강진군민, 기관 및 단체, 학교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더불어 살아가는 강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온도가 상승하며 100도를 향해 달아오르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금은 강진군 내 저소득 가정, 홀몸 어르신,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소외계층의 냉난방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주택 개·보수사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사랑의 온도탑 설치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기부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및 강진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61-430-3162)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윤미경 강진군 주민복지과장은 “주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이 강진군을 더욱 가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연말 지방세 등 체납액 징수 총력 완도군, 공정한 세정 행정 구현

완도군은 연말을 앞두고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의 해로 정하고 그동안 체납 유형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추진해 왔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금융자산 동결, 공매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하고 체납액 징수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 12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줄이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1차로 올해 발생분에 대한 다음 연도 이월 최소화를 위해 읍면과 선제적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각 읍면에 체납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해 납세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필요시 관허 사업 제한도 시행할 방침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영암군, 겨울 자연재난 대비 강화 제설함·모래주머니 3608개 배치

영암군이 겨울철 대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2025년 3월15일까지를 제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 눈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췄다.

3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교통두절 예상구간 16개소 241.5km의 현지답사를 마쳤다.

교차로·고갯길 등 취약지점 도로변에 제설함 108개와 모래주머니 3500개를 배치해 많은 눈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영암군이 관리하는 지방도·군도·대불산단도로 등 주요 도로의 원활한 제설 작업도 준비했다. 1톤 제설차 4대, 15톤 제설용 덩크 5대를 운영하고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5톤 제설용 덩크 1대도 지원받아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친환경 제설제 512톤도 확보해 제설제 보관창고, 11개 읍면 배정도 완료했다.

읍면 소재지와 마을안길 등은 각 읍면별로 조직된 자율방재단과 함께 제설작업에 들어갈 채비도 마쳤다. 영암=한교진 기자

농수특산물 구매 홍보 업무 협약 신안군-YOU달곰

신안군이 우수 농수특산물 구매 및 홍보를 위해 목포시 청년상인 모임인 YOU달곰과 지난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체결한 YOU달곰은 2022년 5월에 결성된 목포시의 청년상인 모임이다. 구성인원은 37명으로 식당, 카페, 사진관, 여행사, 펜션, 수산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사랑 나눔 및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안군의 농수특산물 구매 협조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우수성 홍보, 신안군 축제 시 YOU달곰 홍보 협조 등 다채로운 판로를 확대해 신안과 목포 두 지역의 경제 공동체로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YOU달곰과 함께 우수 농수특산물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관심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안=홍일갑 기자